

10 오피니언

사설

투명한 과정 제공하자

지난해 9월 서울캠퍼스(서울캠) 이과대학 소속 학과인 물리학과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의 요청으로 반도체 융합전공이 개설됐다. 그러나 반도체 융합전공이 개편되고 있다는 소식이 공유되지 않은 채, 해당 전공이 서울캠에 신설됐다고 알려져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대학은 반도체 융합전공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번 논란에 대한 국제캠 총학생회와 전자정보대학의 입장문, 대학본부의 입장이 함께 담긴 게시물들이 돌고 있다. 지난달 14일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게시된 지 25일째이다. 대학에 대한 국제캠 학생들의 반발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제캠 학생사회에서 반도체 융합전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원화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 응용학문 중심의 국제캠에서 반도체 융합전공을 주도하지 않는 것은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국제캠의 입시 결과와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반도체 융합전공은 국제캠 학과만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 역시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반도체 융합전공은 양 캠퍼스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대학의 입장도 납득할 만하다. 주도하는 학과가 어디든 캠퍼스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 좋은 선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캠의 여론이 이토록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학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대편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작될 터이다.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한 정책이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애초의 의도를 현실 속에 구현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일례로 지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강하게 비판받은 것은 해당 정책으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대학에서 기획한 반도체 융합전공 역시 양캠 학생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그 의도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이해관계자인 국제캠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응했어야 한다. 특히 캠퍼스 이원화 구조가 모호성으로 인해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예측

하지 못한 대학의 움직임은 분명히 아쉽다.

해당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대학이 취해야할 움직임은 모호한 이원화 구조에 불만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에서 시작될 듯하다. 대학본부의 책임자, 각 단위의 학생회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여 이원화 구조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논의해야 한다. 언뜻 더더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될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른다.

대학은 모두의 참여를 보장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학의 보다 유연한 대응을 기대해본다.

세시봉

모두의 아픔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세월호 사태를 겪은 지 8년 만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무거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야 했다. 참사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20대 젊은이들이며 10대 사망자도 있다. 희생자 중 대다수가 고등학생이었던 세월호 사태가 다시금 떠오르며 낯설지 않은 참담함이 느껴진다.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호소하고 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없다. 신이 단어를 만들 때,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사용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신조차 단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미처 꽃 띄우지 못한 20대 희생자가 대다수인 만큼, 남겨진 유족들의 슬픔을 감히 헤아리는 것조차 겁이 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성되며 희생자를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 역시 곳곳에 올라오는 상황이다. 우리학교 커뮤니티에서도 '놀다가 죽은 것 아니냐', '놀다가 죽은 사람한테 왜 세금을 쓰냐'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외면을 넘어서는 혐오 표현이다.

이태원 참사는 타인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우리 가족의 친구가, 친구의 가족이 희생자일 수도 있다. 이번 참사로 사망한 우리학교 재학생은 없지만, 직간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심리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은 참사의 원인이 아닌, 단지 안타까운 변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그 차디찬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는 못할 것이다. 희생자를 모욕하고 자식 잃은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최악이다.

서울 곳곳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많은 시민들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한때 우리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던 정(情)이라는 가치와 주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연대의식에서 비롯될 터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과 학교 간 원만한 소통 위한 체계의 필요성

소통의 체계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갈등 해결은 대부분 대화의 시작에서 물꼬를 튼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 갈등부터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화제거리까지, 그 해결의 시작을 대화에서 발견하곤 한다. 일례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관계는 원만한 대화를 통한 화합을 지향한다. 여러 기업 및 조직은 문의 게시판이나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등과 소통하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청각장애학생의 어학성적 관련 애로사항을 취재하며, 학생과 장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학내 기관 간에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그렇기에 소통의 사례나 방식에 있어 아쉬움이 엿보인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소통의 오류가 단순히 의지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짓는 것은 알팍한 판단이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측은 학생을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가졌으며, 문제 상황에 관한 소통이 미흡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청각장애학생들 또한 관련 기관 및 학교 측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기업의 조직 관리와 같이, 학교와 학교의 구성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청각장애학생의 적극적인 소통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또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요청 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오가는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소통과 타협의 발판이다.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뿐 아니라 그 과정과 교류 방식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통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만평 시작은 소통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